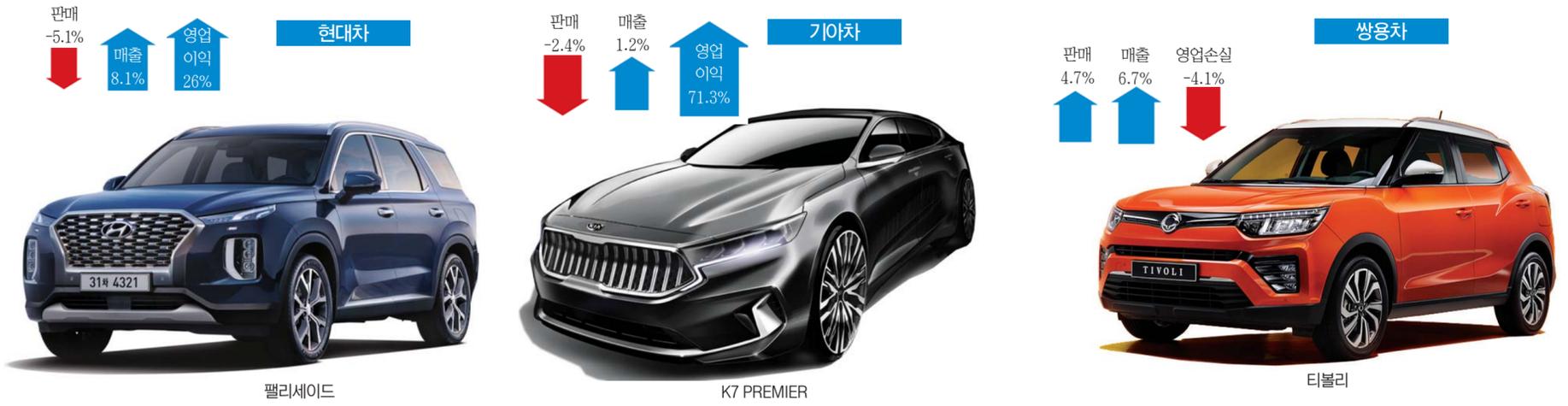


판매 위축 속 토종기업은 웃고...외국계는 울고



국내 완성차 상반기 판매 실적 보니...

올해 상반기 국내 완성차 5사의 판매 실적은 크게 위축됐다. 다만, 신차 효과와 우호적인 환율환경 덕분에 영업성적은 희비가 갈렸다. 토종 완성차업체는 크게 웃었고, 반면 외국계 완성차업체는 대내외 약세가 겹치면서 눈물을 머금었다.

29일 국내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완성차 5사의 올 상반기 실적은 마·중 무역 분쟁과 신형시장 위축 등으로 판매 실적이 모두 감소했다.

다만, 수익성이 높은 SUV 판매 호조와 원화 약세 덕에 해외 판매가 주력인 토종 현대·기아차는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됐다. 외국계 업체인 쌍용차는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리고도 적자 폭이 확대됐고, 한국GM과 르노삼성엔 내수·수출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

현대자동차는 올 상반기 ▲판매 212만6293대(내수 38만4113대, 해외 174만2180대) ▲매출 50조9534억원 ▲영업이익 2조6262억원 ▲당기순이익 1조951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SUV 판매 호조·원화 약세 힘입어 영업이익 현대 26%, 기아 71% 늘어 쌍용 사상 최대 매출 불구 적자폭 확대 르노삼성·한국GM 내수·수출 모두 ↓

해 같은 기간보다 판매는 5.1% 줄었지만, 매출은 8.1%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6.4%, 당기순이익은 26.6% 각각 늘었다.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4.0%였다.

특히, 2분기 실적이 좋았다. 2분기 영업이익은 1조23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2% 급증, 시장 전망치(1조1127억원)보다 1000억원 이상 높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017년 2분기(1조3445억원) 이후 최고 실적이며, 2017년 3분기(1조2042억원) 이후 7분기 만에 분기 영업이익 1조원대로 복귀했다.

기아자동차는 ▲판매 135만2629대(내수 24만2870대, 해외 110만9759대) ▲매출 26조9510억원 ▲영업이익 1조1277억원 ▲당기순이익 1조1545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판매는 전년 동기대비 2.4% 감소했지만, 매출은 1.2% 증가했다. 특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71.3%, 51.1% 늘었다. 기아차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4.2%를 기록했다.

기아차는 올 하반기에도 신규 SUV 모델 및 불륨 신차 판매 확대, 인도를 포함한 신형시장 공략 강화 등을 통해 수익성 방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내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준대형 세단 K7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광주에서 생산하는 신규 소형 SUV 셀토스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쌍용자동차는 올 상반기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리고도 적자 폭이 확대됐다. 신규 투자와 영업비용 증가 탓이다. 쌍용차는 ▲판매 7만 277대 ▲매출 1조 8683억 원 ▲영업손실 769억 원 ▲당기 순손실 776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판매는 4.7%, 매출은 6.7% 증가했다. 특히 내수 판매가 작년보다 8.6% 증가하면서 전체 판매대수도 함께 증가했다. 이는 16년만의 상반기 최대 판매기록이다. 하지만 영업손실 769억원으로 적자 폭(-4.1%)은 확대됐다.

한국GM은 지난해 군산공장 폐쇄 등 구조조정 여파로 올해 상반기 내수와 수출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으며 판매량이 줄었다.

판매는 내수 3만5598대, 수출 19만5574대 등 총 23만117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24만6386대) 대비 6.2% 감소했다. 내수 시장에서는 신차가 부족해 16.2% 급감했다. 수출도 4.1% 감소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노사분규 장기화로 인해 판매 부진이 심화되면서 지난해보다 내수·수출 모두 줄었다. 르노삼성은 내수 3만6506대, 수출 4만9338대로 총 8만5844대를 팔았다. 전년 동기 대비 내수와 수출이 각각 10.8%, 42.0% 감소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벤츠, 스포츠+기부 '기브앤바이크' 참가자 3000명 모집

9월 21~22일 경기 용인 AMG스피드웨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오는 9월 21~22일 이틀간 경기도 용인시 AMG스피드웨이에서 열리는 '제2회 메르세데스-벤츠 기브앤바이크' 대회의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기브앤바이크는 국내 취약 계층 아동 및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 자전거 대회로, 스포츠와 기부를 결합한 기부 문화 확산 캠페인 '메르세데스-벤츠 기브' 시리즈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자동차 레이싱 서킷에서 펼쳐지는 사이클 경기와 러닝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열린 '제1회 메르세데스-벤츠 기브앤바이크'의 성공을 바탕으로 올해는 참가 인

원과 행사 일정을 지난해의 2배로 늘려 이틀에 걸쳐 3000명 규모로 개최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연령의 참가자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했다.

이번 대회는 사이클 프로그램인 '챌린저리그'와 '마스터리그', 러닝 프로그램인 '서킷런'으로 이뤄진다.

챌린저리그(12.9km·1500명)는 입문자부터 중상급 라이더까지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자전거 라이딩 프로그램이며, 마스터리그(17.2km·500명)는 전문 라이더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스피드 경쟁 프로그램으로 9월22일 하루 진행된다.

또 새롭게 마련된 비경쟁 프로그램 서킷런(4.3km·1000명)을 통해 참가자들은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AMG스피드웨이를 직접 달려보는 색다른 경험

을 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벤츠 기브앤바이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챌린저리그와 마스터리그는 20세 이상부터, 서킷런은 연령 제한 없이 참가할 수 있다.

10인 이상의 단체는 별도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챌린저리그와 마스터리그, 서킷런은 모두 중복 참여할 수 있으며, 인당 참가비는 챌린저리그 5만원, 마스터리그 10만원, 서킷런 2만원(사이클 참가자가 중복 신청 시 1만원)이다.

참가비 전액과 현장 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을 통해 국내 취약 계층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비, 의료비로 전달될 예정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타이어, 고속도로 휴게소 5곳서 타이어 무상점검

금호타이어가 여름휴가를 떠나는 고객들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타이어 무상점검과 안전운행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무료점검 서비스를 진행하는 곳은 군산(서울방향), 함안(순천방향), 가평(춘천방향), 여주(강릉방향), 망향(부산방향) 등 전국 5개 고속도로 휴게소다.

해당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들은 금호타이어의 전문가들로부터 타이어 공기압과 마모 상태 점검, 밸런스 점검 등의 타이어 안전점검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타이어 안전관리요령 안내와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며 방문 고객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www.aroma-life.co.kr

광주역
엔씨백화점
광주역점
오리거리
아로마라이프
성요한병원
유동서거리

FACE 메이크업만 하는 시대는 끝!
이제는 BODY 메이크 UP!

☆☆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보정속옷 12년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기공 원적외선기공

대리점·총판문의 **1588-2219**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경일로 235 V&G빌딩 서울사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도곡동 518-9)